

2/6/22

설교 제목: 내가 친히 가리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33 장 1-23 절

(출 3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출 33:2)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출 33:3) 너희를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절관주** 출 32:10

(출 33:4)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출 3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출 33:6)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절관주** 벤전 3:3

회막

(출 33:7)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출 33:8)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출 33: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출 33:10)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출 33:1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주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하시다

(출 33:12)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출 33:13)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 33:1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 33:15)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출 33:16)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출 33: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

(출 33: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 33: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 33:20)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 33:21)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출 33: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출 33:23)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본장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뜻을 돌이켜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속사의 주인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 가슴이 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 40 일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규례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의 식양을 받는 동안 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간 모세가 돌아 오기만을 학수고대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신들이 생각한 만큼 속히 돌아오지 않자 모세 기다리기를 그만 포기하고 자신들을 인도할 자신들의 신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것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은 대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고 대신 모세의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달라고 간구했고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하신 것을 보류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응해 주시기는 했으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 3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출 33:2)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출 33:3)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네가(모세)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지칭하심으로써 진노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음을 나타내십니다.

우상 숭배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여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땅은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변개치 않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땅 가나안은 약속대로 주겠다고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최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이 복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출 33:4)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출 3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출 33:6)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본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폐기하신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에게는 인도자요 보호자를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몸을 단장하지 않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만약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은 죄로 인해 진멸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이 센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장신구를 떼어 내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고 회복의 길을 열어 두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 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고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막을 임시로 만든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함께 동행하시도록 전심 전력을 다합니다.

(출 33:7)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출 33:8)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출 33: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출 33:10)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출 33:1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언급된 회막은 26 장의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세가 진영 밖에 마련한 것입니다.

모세가 진영 밖에 회막을 마련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심으로 중보자인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에 소망이 남아 있음을 보여 줍니다.

모세는 언약에 근거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끈질기게 간구했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 냅니다.

(출 33:12)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출 33:13)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 33:1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 33:15)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출 33:16)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출 33: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를 새로이 지시해 달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새로운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노정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청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영광들은 여호와와 본질적인 영광이 아니라 구름 불 우뢰 소리 등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모세는 중간적인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여호와와 영광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출 33: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 33: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 33:20)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모세의 요청을 간접적으로 거절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기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목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은 ‘나의 모든 선함’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여러 본질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의 가시적인 실체를 보여 달라는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질적인 속성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또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여호와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세의 청을 들어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면 모세는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의 이 청을 들어주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 그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시고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 당신의 일부분이라도 보여 주고자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당신을 구하는 자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출 33: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출 33:23)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당신이 지나도록 당신 손으로 덮었다가 다 지나가신 후 손을 거두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당신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대신 등이라도 보게 하십니다.

이로써 모세는 성경의 위인들 중 하나님의 실체의 일부라도 목격한 유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성도가 천하 만민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 천하만물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세상 최고 최대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